

혁신도시 공기기업 지역은행 참여 규정 마련해야

윤영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빛가람 이전기관 지역은행 외면
'시즌2' 앞두고 의무 조항 시급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으로 지역 은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주거래은행에 대한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 지역은행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업무에 지역은행이 동참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인 '탈중앙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주거래은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전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중앙 5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거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7월말 현재, 이들 공공기관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은행이 기준이다.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중 이날까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11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은 모두 시중 5대 은행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농협은행 ▲한전 KPS(주) 농협은행-우리은행 ▲한국전력거래소 우리은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리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협은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협은행



전국체전 성화 땅끝에서 채화 전국체전을 20여 일 앞두고 체전의 시작을 알릴 성화가 해남 땅끝에서 채화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오전 해남군 송지면 매향광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성화 특별채화식에서 칠십년에 의해 채화된 성화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은행·신한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이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은 주거래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현재 제출하지 않았지만 윤영덕 의원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 5대 은행을 선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전국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2개 중 이날 현재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공공기관 69곳이 시중 5대 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인재 채용과는 달리, 주거래은행 계약 과정에 지역 은행 할당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탓이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해 지난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의 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은 연간 구매 물량의 20%를 혁신도시 입주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일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는 일자리'를 얻고 '관련기업은 성장'할 수 있으며, '금융 자산도 지역에서 시

너지 효과'를 내는 '혁신도시 이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은행이 제2·제3의 거래은행이라도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내 재투자,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환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1750여억원을 시중은행에 예치중인데, 이를 지방은행에 예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좌초 위기' 광주신세계 확장 해결 돌파구 찾아라

금호월드 민원 상인들 협상 제안
광주시 중재자 역할 적극 나서야

갑자기 끼어든 민원 하나 때문에 좌초위기로 내몰렸던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광주일보 9월 18일자 1면)과 관련, 민원 주체인 금호월드 상인들이 민원 철회 의사와 함께 첫 공식 협상을 제안하고 나선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금까지 금호월드(일부 상인들)가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차도 만큼은 존치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 차도존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변화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민원 당사자인 금호월드측은 광주신세계측에 공식 협상 의사를 밝히고, 3가지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월드 관리단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온 도로(폭 8m·길이 158m) 편입 계획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호월드 상인들은 이어 이날 합의한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시-광주신세계 3자 협의체 구성 등 3가지안을 공식 제안하는 공문을 광주신세계에 보냈다.

금호월드측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시 공동심의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멈춰선 광주신세계의 확장 사업 인허가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다만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은 최대 걸림돌이다.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온다. 금호월드 민원해소를 이유로 미뤄온 행정절차인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광주신세계와 금호월드측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금호월드측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면서 "다음 행정절차인 공동심의위원회 구성도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야구보다 재밌다



YouTube
광주일보

김도영

양현종

차 빼앗긴다해도 정신 못 차리는 음주운전 ▶6면

굿모닝 예방 - 디자인, 삶을 바꾸다 ▶18·19면

'김도영 살리기' 최형우, 배팅볼 투수 자처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